

# KNN '범어사 보제루' 왜곡방송 공식 사과

부산 경남방송

"범어사 보제루 불법공사 관련 KNN은 왜곡방송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라!" KNN부산경남방송이 6월 23일 불자들의 공식항의를 받고 KNN 8시 뉴스아이에서 보도한 '범어사 보제루 재시공 불법공사'에 대해 왜곡방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건의 발단은 KNN이 보제루 공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공사"라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부산 범어사 신도를 비롯한 부산 불교계 500여 명은 6월 25일 KNN을 방문해 이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부주지 범산 스님, 전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과 이은희 범어사 신도회장은 KNN 사장실에서 이만수 사장, 김석환 부사장, 김병근 방송본부 보도국장과 만나 1시간가량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범어사 측은 "뉴스에서 보도한 바와 같

이 건물 철거와 신축이 금지되어있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고 문화부 장관의 승인절차도 어겼다면, 어떻게 문화재청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불이문 철거부분에서도, 문화재 보존에 있어 문화재청 위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이동 설치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수불 스님은 KNN정문 앞에서 신도들에게 "왜곡없는 공정 보도를 약속을 받았다. 사태수습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제루 공사 관계를 진행했던 정여 스님은 "범어사의 보제루 공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공정보도를 해야하는 언론이 잘못된 제보에 있어 확실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회의 내내 정문 밖에서 '화엄성중'을 외우며 결과를 기다리던 불자들은 환호로 답하며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자진 해산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모두 함께 군포교 진흥"** 전국 교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정지계와 수행교포를 발원했다. 조계종 군포교구(교구장 자광)는 6월 26일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에서 포살법회를 시작으로 3일간 하계수련회를 진행했다. 하계수련회는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린 입재식에 이어 포살법회로 진행됐다. 포살법회는 교구장 자광 스님, 부교구장 선일·심산 스님을 비롯해 전국 130여 명의 군승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동참군승들은 <범명경>을 낭송하며 자광 스님과 일일일담했다. 자광 스님은 "군부대 일선에서 포교활동을 하거나 하안거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 오늘 포살을 하게 됐다. 오늘의 공덕을 바탕으로 허물을 벗어나고, 항상 청정함을 지키며 중생에게 법을 전하는 법사가 되 달라"고 당부했다. 법회 이후 해운대에 위치한 그린내콘도에서는 수련회가 열렸다. 수련회에서는 육·해·공군별 모임으로 부대간 사찰운영 정보 교류 등이 진행됐으며 저녁에는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27일에는 동백섬 신행 및 단결활동, 각 군별 장기자랑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사·사찰조경연구소 공동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길가에 도열한 부처님

불상은 간다라와 마투라 두 곳에서 그 형태적 기원을 보이지만 어느 것이나 깨달은 이가 가져야 할 초자연적인 모습과 모든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자애로운 스승의 형상으로 표현된다. 불교조각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형태적 특성은 32개의 특징(相)과 80개의 작은 특징(好)으로 설명된다. 불상은 스투파와 더불어 불교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작용하였으며, 불교가 전파되는 지역의 문화에 따라 형식적 진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불상이 만들어지면서 사찰은 형식적으로 엄정한 변화를 보인다. 그것은 스투파가 중심이 되던 공간의 구조가 부처님을 모신 불전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A사찰에서 볼 수 있는 진입로 변에 도열한 불상들은 분명 과거이다. 물론 불상이 꼭 건물 안에만 모셔지는 것은 아니다. 마애불도 있고 노천에 세운 불상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상을 길가에 도열한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부처님이야 삼라만상에 상주해 계시는데, 장소가 중요한 일이 무엇이나 할 수도 있고, 절에 오는 불자들을 맞이하는 불상들로 인해 절에 가는 길이 즐거워졌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삼귀의례를 모시는 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삼보는 분명 예경의 대상이며, 신앙의 본질이 아닐 수 없다. 그렇

다면 불상을 길가에 도열해 놓은 행위는 삼보에 대한 불경이며, 훼손이다.

이 절의 불상들이 길가에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다만 카오슝의 불광사의 경우를 단순히 흉내 낸 것도 문제이고, 예술성 없이 일정한 틀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불상의 제작정도 문제이다. 불교의 전파경로를 따라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진 불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불모(佛母)들의 예술성과 신앙심이 드러난 예술작품이 아닌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토함산 석굴암 부처님이 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가?

일정한 틀에서 찍어낸 불상

신심·예술성 찾아 볼 수 없어

사찰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 이 절의 본래적 의도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역발상이 불교교리와 신앙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불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진다. 변화는 있으되 그 변화가 사찰환경의 발전적 진화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한국사찰의 진정성과 완성성을 더욱 분명히 하여 한국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경상북도 A사찰의 진입로변에 도열된 불상



대만 불광사사의 '도로변'에 도열된 불상

생명나눔, 음악회 통해 온정 나눠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원장 원범)는 6월 27일 화상전문 하나병원 1층 로비에서 '제 6회 환자폐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대북 퍼포먼스와 장기자랑 등 환자와 병원관계자 모두가 참여한 생명나눔의 이번 행사에서는 중증 화상환자에게 피부이식을 위한 조직기증을 홍보하는 활동도 함께 이뤄졌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장애인 회원과 선유도 나들이

거창군살의쉼터(관장 도영)는 6월 22일 직원을 포함한 장애인회원 약 70여명과 함께 전북 군산에 위치한 금강철새조망대와 선유도를 여행하며 친목도모와 재활의지를 다졌다.

대상으로 금강철새조망대 및 선유도 유람선 관람 등이 진행됐다. 거창군살의쉼터 관장 도영 스님은 "이번 나들이를 비롯하여 앞으로 장애인들과 재활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 교육

6월 23일 부산불교회관 5층 교육관에서 한국사회복지회가 주최하고 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여)가 주관한 제6회 지역주민사회복지교육이 열렸다.

이웃, 사회, 국가를 초월한 우주적인 사랑"이라며 "진심에서 우리나라는 맑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 때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부모 봉사 모습이 바로 자녀교육"

여만숙 여여선원 회장

"1992년 부부나포교원에서 불교경전 공부할 때, 보살은 보현행을 실천해야 된다는 스님 말씀을 듣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 복지단체 성우원에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성우원 장애우들의 밝은 모습에 봉사의 참맛을 느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등 7개 불교계 봉사단체를 10년 넘게 이끌고 있는 이가 바로 여만숙 여여선원 회장(사진)이다.

여 회장은 "2003년 장애우들의 합창 공연에 세 남매를 데리고 갔었는데 처음에는 장애우를 무시하던 아이들이 그들의 공연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순간 진정한 자녀교육임을 깨닫고 더욱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 회장이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6년 여여선원에서 실시한 6개월 과정의 '호스피스 간병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으면서 부터다. 여 회장은 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애



정을 남다르다. "가장 바람직한 불자는 부처님 법 공부를 하고 복지자원봉사교육을 받은 다음, 사회를 위해 행을 베푸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천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하면서 느낀 점은 범공부를 한 신도들은 봉사함에 있어 그 자세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 회장은, 회장 취임으로 더욱 바빠진 요즘 결혼한 큰 딸이 업무를 도와주며 든든하다며 웃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책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 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중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퇴행성 질환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척추(neck)를 쉽게 푸는 법 수록
-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 악어가죽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째 뽑는 법 수록
-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중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짙어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짙~뿔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신면 구리리 901 소백산수련원
- 책신청 : (054)637-9810**